

2/18/18

설교 제목: 남은 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9:19-33

- (롬 9:19)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 (롬 9:20) 이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절관주** 딤후 2:20
- (롬 9: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절관주** 살전 5:9, 벴전 2:8
- (롬 9: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절관주** 딤후 2:20
- (롬 9: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 (롬 9: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 (롬 9: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절관주** 호 1:10
- (롬 9: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 (롬 9: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 (롬 9: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 (롬 9: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 (롬 9: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절관주** 빌 3:9
- (롬 9: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롬 9: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주시리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존 뉴턴(John Newton) 목사가 과거 자신이 흑인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마구 잡아다가 미국 남부 농장에 판 일, 또 잡아온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일 등등을 회고하면서 그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쓴 기도문입니다.

그는 노예를 사고 판 노예 상인이었는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세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틀림없이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둘째는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셋째는 나같은 죄인이 하늘 나라에 들어온 사실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나쁜 짓들을 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감격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 뉴턴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지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주 나눈 말씀인 본문 앞 부분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에 마음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예서와 야곱 중 야곱을 택하신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 중 특정한 자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약속의 성취자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주권으로 약속의 자녀를 택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라도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만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찝찝한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뜻에 의해 구원 받을 자가 택하여진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롬 9: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롬 9: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왜 나를 택하지 않았느냐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이 이치를 설명합니다.

토기 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같은 진흙 덩이를 가지고 한 덩어리로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덩이로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토기장이 권한이지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나를 왜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따지고 불평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본절은 에레미야 18 장에 기록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렘 18:1)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렘 18: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렘 18: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렘 18: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렘 18:5)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렘 18: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바벨론은 점점 강대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멸망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많지만 그래도 이방 바벨론 보다는 훨씬 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보라고 하십니다.

가보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 부수고 또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었다 부수었다 하는 것과 같이 나도 이 백성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 토를 달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목적이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히 그 뜻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롬 9: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롬 9: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롬 9: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어 긍휼의 그릇이 된 그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롬 9: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롬 9: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얼마 살다가 집을 뛰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 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 나간 고멜을 찾아 데려옵니다.

그런데 고멜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아기가 도대체 누구의 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 주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낳은 아이지만 이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고쳐주십니다.

'암미'의 의미는 '이는 내 백성이라'입니다.

본래는 그 아이가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내 백성으로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었다'고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곳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롬 9: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롬 9: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롬 9: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는 '하나님의 날'과 함께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사 10: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사 10: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사 10: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여기서 '그 날'은 가까운 미래의 '그 날'과 '먼 훗날의 그 날' 이렇게 두 날을 예표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먼 훗날의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남은자'는 '그루터기'라고도 합니다.

나무를 완전히 뿌리째 뽑지 않고 다시 싹이나 자랄 수 있도록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두 멸하지 않고 남겨 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남은 자'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만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 것이고 남은 자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롬 9: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롬 9: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롬 9: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를 얻으려고 했으나 죄인인지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의를 얻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롬 9: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stumbling stone)과 거치는 바위 (rock of offence)는 각기 다른 두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반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돌은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 돌을 거침돌로 만들어 스스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행위와 믿음이라는 양자 택일에서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남은 자'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를 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입니다.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같은 죄인을 택하셨는가 그 택하심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